

제로플라



패랭고양이



피치로사



곽한나



패랭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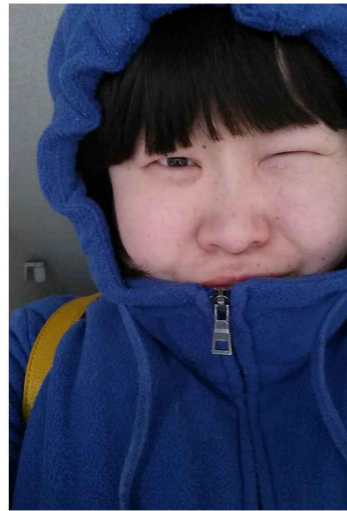
패랭이꽃+고양이

피치로사

영어Peach(복숭아빛)

+

스페인어Rosa(장미)



김지연

목 차

지구의 경고

플라스틱

지구를 살리는 열 가지 실천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

부록 <내가 사는 주위 둘러보기>

거울 같이 맑다 해서 붙여진 경포 호수

우리학교 작은 숲

지구의 경고



나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눈꽃이 휘날리듯 벚꽃이 만발 하고 딱딱한 땅을 뺨뺨히 비집고 올라오는 새싹과 꽃망울이 뽕뽕 튀어 오르는 봄

녹음이 짙고 찌는 듯한 더위지만 바람 한줄기가 내 머리칼을 스치면 상쾌해지고 그 햇살을 머금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열리는 여름

온 산과 들에 울긋불긋 단풍과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와 높고 푸른 하늘

공공 얼듯 칼바람이 애워싸도 뜨거운 길거리 간식 하나에 행복한 겨울

하지만 요즘은 각 계절의 냄새와 변화를 느낄 틈 없이 점점 계절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러다 우기와 건기만 있게 될까 두려운 요즘이다.

지구의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문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튜브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인터뷰 하시던 분이 만났던 고3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다. 왜 어른들은 환경 문제를 먼 미래의 일이라 이야기 하는가 가령 아직은 괜찮다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내가 내년에 졸업을 하면 편안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질지 아니면 밖에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일할지 모르는 일인데 이상기후로 인해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의 피부가 익어있었다는 걸 볼때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야기였다.

저 학생말대로 환경문제는 나중 일로 먼 미래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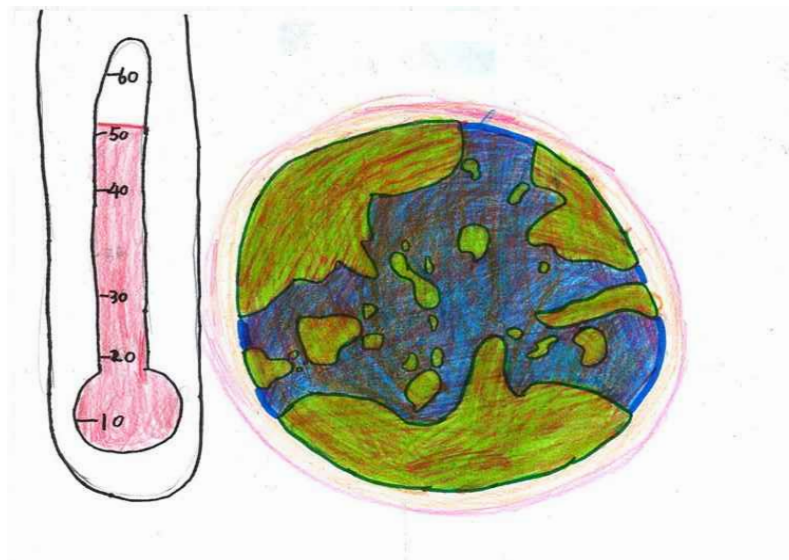
매 해 알 수 없는 불로 많은 숲이 타 들어가고, 잦은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고, 또 어느 곳에는 가뭄으로 인해 일시적인 단수를 하기도 하고 보면 그저 외면만 할게 아니라 모두가 심각성을 알고 행동하고 변화 할 때 이다.

몽골은 넓은 초원이 있고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 이동식 천막집인 게르를 지어 이동하며 사는 초원의 나라로 알고 있지만 최근 풀의 양이 줄어 봄에는 가축들이 먹이가 없어 가축을 기르기 힘들 뿐 아니라 눈이 오지 않아 더욱더 메말라가고, 초원의 사막화로 가축을 기를 수 없어 유목민들은 도시로 나와 일자리를 찾는데 그마저도 일자

가 없어 재활용이 되고 돈이 될 만한 금속, 재활용품 등을 골라내며. 쓰레기 적치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빈민들이 형성한 쓰레기 마을도 생겨났다. 집이 없어 맨홀 아래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초원을 누비며 여유롭게 살던 유목민들이었다..

몽골은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국이라 한다. 한국 환경공단 (<https://m.blog.naver.com/kecoprummy/221593364020>) 포스팅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세계 평균기온이 0.7도 상승하는 동안 몽골은 무려 2.1도가 올랐고. 그로 인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몽골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던 사막은 78%까지 확대되었다. 몽골의 환경부는 지난 30년 동안 1,166개의 호수와 887개의 강, 2,096개의 샘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태가 몽골 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게 더욱 두려워진다.

지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무 아프다고 눈물로 고열로 때론 메마름으로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낸다. 지구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더 이상 열이 나지 않도록, 한번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불꽃으로 성내지 않도록 메마른 지구를 안고 보살펴주자!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간편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인 것 같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처럼 불편한 진실의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난 이러한 플라스틱의 진실을 이 글로 통해 알리려고 한다.

플라스틱의 사전적 정의는 '열 또는 압력에 의하여 성형할 수 있는 유기물 기반 고분자 물질 및 그 혼합물을 이르는 키는 용어' 라고 나와 있다.

플라스틱은 종류가 많다.

장난감, 식품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산가격이 낮고, 생산력이 많은 '범용 플라스틱' 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편하긴 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편한 만큼의 대가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TV나 SNS에서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물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인간은 피해보는 것이 없으니 잘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바다나 땅 등에 있고 바다에서 썩히고 썩던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는 우리가 먹게 되는 셈이다. 결국엔 인간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아야한다. 플라스틱은 무조건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페트병은 비닐 병뚜껑 다 따로 버려야하지만 병뚜껑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보면 된다. 작고 색깔이 다 다르기에 쓰기 힘들다고 한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을 찾게 되거나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잘 쓰고 잘 버리면 그만 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소비 습관을 돌아보며 샤프보다는 연필 등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조건 소비하는 것 보다는 지구를 위한 소비도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플라스틱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일상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에 무조건 하지 말라 하면 일단 많은 것을 버려야 할 것인데 다 필요하고 쓰긴 해야 하는 물건들이기에 더욱 힘들다. 기왕이면 내구성이 좋아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용품들로 최대한 대체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분리수거가 제일 좋은 법이다. 나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많이 배워서 지구를 위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한다.



지구를 살리는 10가지 작은 실천



첫번째. 현명한 소비 하기

어릴 적 부터 무엇인가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너무 좋아한다. 마음만은 키덜트 랄까?

나의 로망중 하나가 나만의 집이 생기면 한 공간을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와 인형으로 책장 칸칸마다 스토리별로 진열해 두는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미니어처나 피규어를 모으기도 하고, 더 예전에는 엽서나, 편지지, 스티커, 문구류, 등 다양하게 모았다가 처분하길 반복했다.

취미는 장비빨이라고 필요하지 않지만 때 샀은 진리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것 하나뿐 아니라 똑같은 아이템을 색깔별로 혹은 모양별로 모으고 바라보며 부듯해 했다. 왜 그때는 다 쓰지도 않을 것을 쌓아두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고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 이었는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사고 내 위시리스트를 채우는 재미로 돈을 벌긴 하지만 처분하게 되거나 되팔 때 가끔씩 현타가 오기도 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여행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따라 다녔다. 또한 환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편지나 노트, 읽진 않지만 소장만 해온 책들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벌목되는지, 쓰지 않고 모아두는 볼펜,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필기구류와 재활용되기 어려운 장난감들을 더 이상 무분별하게 사지 않고 있는걸 최대한 사용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기보단 필요한 사람에게 팔거나 나눠주고, 요즘은 일부러 수집의 목적 하나만을 생각하고 마구 소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내 취향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취미생활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취향존중 이니까!

두번째. 쌓아두지 않기, 삭제하기

한동안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 했었다. 검사 질문 중에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항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문제와 직면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을 땐 그저 가볍게 넘어가던 문항이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가볍게 넘어갈 문항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메일과 환경관계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 역시 얼마 전까지 너무 쉽게 몇 분이면 가입되어 사용 하는 메일계정이 아니 메일함속에 고이 잠들어 있던 수많은 스팸메일과 보관한 것들이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적이었다.

McAfee 보고서 '스팸 메일의 탄소발자국'(2009)에 따르면 매년 스팸메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330억kW의 전기소모량이 들고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메일 뿐 아니라 동영상 시청을 하고 데이터를 사용 하는 것이 왜 탄소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데이터센터 때문이라고 한다. 데이터센터는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것들 검색, 저장소, 온라인게임 등 온라인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설인데 전 세계 데이터 처리를 위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데이터 보관과 전송에 대규모 전력 소모를 소모하고 또한 데이터 센터를 관리 할 때에도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발생 한다고 한다.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전력소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메일을 사용 하는 전 세계 인구가 무심결에 쌓아둔 이메일을 지우는 것만으로 엄청난 데이터 용량을 줄이고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이메일을 확인 했다. 사용하지 않는 메일은 999+ 라는 스팸메일로 가득히 있었고 귀찮다고 그저 방치해 둔 내가 부끄러워 모두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워 냈다.

확인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메일은 삭제하고, 첨부파일은 메일함에 두지 말고 따로 보관하며 스팸메일도 바로 차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니 당장 실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세번째. 난방온도 1도만 낮춰도 북극곰과 펭귄은 행복하다.

나는 유독 추위를 많이 탄다. 살이 찌면 추위를 덜 탄다고 하는데 나는 날씬했을 때 도 살이 찌 지금도 추운 건 너무 너무 싫다. 그렇다고 집에 난방을 세게 틀지 못하는 이유는 극도로 피부가 예민한 극건성이며, 또 안구건조증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난방도 타이머를 맞춰서 오전에 오후에 한 번씩 돌리고,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는 9월부

터는 수면양말을 꺼내 신는다. 그리고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시고,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해 후끈해진 몸의 열이 날아가지 않게 이불속으로 쏙 들어가면 노곤해져서 난방을 높이거나 전기장판을 틀지 않아도 포근하게 잘 잘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평균온도는 15도 인데 1도만 높아져도 빙하가 모두 녹고, 가뭄지역이 많아져 물이 부족할 것이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한다. 머메드가 살던 빙하기때의 지구 평균온도는 11도였다고 하는데 4도 높아졌는데 시베리아 온도가 여름 34도 까지 웃돌고 펭귄이 진흙탕에서 뒹굴게 되는 환경이라니... 이제는 더이상 지구의 온도를 높이지 않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햇빛이 들어올때 태양열로 집안 온도를 높이고, 집안에서도 걸옷을 챙겨 입고, 외출 시에도 얇은 옷을 겹겹히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전기장판도 사용할때만 켜두자.

네번째. 용기내서 거절하자

나는 무척 소심한 편이다. 식당에 가서 무언갈 더 주문하고 싶어도, 내가 '저기요' 라고 부를 때 가끔 손님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게 될 때 너무 부끄럽다. 요즘은 어플로 음식주문 뿐 아니라 다양한 물건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너무 좋고 편하다.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처리하는 건 너무 곤란하지만) 가끔 장을 볼때도 자차가 없으니 마트도 어플로 주문하곤 하는데 봉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 당근하나를 사도, 요거트를 사도, 냉장용 냉동용을 사도,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 고객의 이름 스티커를 붙여서 또 한 번 포장을 해서 주는데 직접 마트 가서 내가 장볼 때보다 더 많은 비닐봉투를 받는 것 같다. 그렇다고 마트를 직접 가도 달라지진 않는다. 랩에 공꽂 쌓여 있는 식자재들도 많고, 하나를 사고 싶은데 따로 날개로 파는 게 없어 과대포장이 된 제품들을 집어올 수밖에 없다.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렇게 묶음으로 팔게 되면 요리를 하려고 재료를 샀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상해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편하다며, 간편도시락이나 즉석밥 등을 사먹곤 한다. 그러면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나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론 나 먼저, 마트보다는 시장에 가서 필요한 만큼 저렴하게 사용할 만큼 사고, 먹을 만큼 조리하면 좋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 대기업에서도 포장을 최소화 하고, 대체용기를 만들고 한다면 소비자들도 바뀌지 않을까? 최근 멸균우유는 유통기한이 길고, 한 번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재활용도 힘든 빨대를 모아 우유 제조업체에 보냈고, 그런 운동의 노력이 통했는지 환경부에서 모든 플라스틱 음료 팩에 빨대 부착금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빨대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빨대가 필요 없는 커피컵 뚜껑을 사용하여 빨대 사용량이 급감한 것처럼 우유제조업체에서도 빨대 사용을 줄이는

용기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 장을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커피를 마실 땐 플라스틱 용기보단 머그컵, 또는 텀블러를 사용해 환경지원금으로 할인받으며 마시고, 혹시라도 음식을 방문포장 할 때는 집에 있는 용기를 들고 가서 포장하며, 배달 어플에도 일회용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체크해서 일회용품 낭비 하지 않기를 실천하자

조금은 유별나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용기내기!

다섯번째 대체품 이용하기

SNS를 하다가 무서운 이야기라며 적혀 있던 글귀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류 첫 칫솔은 아직도 썩지 않았다.’

칫솔의 유래는 길지만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진 칫솔은 1938년 이라고 한다.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 매일 쓰고, 자주 바꾸는 칫솔의 배신감이란 어마무시하다. 그런 쓰레기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을 또 우리가 먹고, 사람에게 이롭자고 발명한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

요즘 제로웨이스트샵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면, 대나무로 만들어진 칫솔, 식물 수세미를 말려서 파는 수세미, 수질 오염을 덜 시키는 삼푸바, 쉽게 분해되거나 식물로 만들어지거나 다회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빨대, 자연분해되는 자연열매 100% 천연세제 소프넛,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다회용 랩과 여러번 소독하고 삶아 쓸 수 있는 실리콘 지퍼팩 등 신기하고 독특하고 그러면서도 환경을 덜 해치지 않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용기만 가져오면 리필되는 친환경 세제 소분샵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집에서도 충분히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김치나 생선을 썰때 종이호일을 까는 대신 우유팩을 펼쳐서 썰면 좋고, 소스병은 곡식이나 조미료 통으로 재활용 하고 1리터 플라스틱 우유용기는 친환경세제를 만들어 담아 쓰거나 쌀통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한번만 쓰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 보다는 다시 쓰고 새로운걸 사기전에 또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여섯번째 분리수거는 철저히!

분리수거라는 것은 사실 엄청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분리수거 부터 시작을 해보자!

유리병은 라벨을 제거한 다음 깨끗히 세척한 후 뚜껑은 따로 분리수거를 해야한다. 그냥 투명한 유리병은 분리수거가 되지만 색이있는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은 분리수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색상별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경우 분리해서 버리면 훨씬 좋다. 또는 보증금병 이라고 해서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팔면 돈을 주는데 주변말로는 소주 병 25~30병 사이 정도 모아서 파니까 술사먹을 돈이 나왔다고 하는데 보증금 환불이 되는 병이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플라스틱인데 그 중에서도 배달용기 분리수거를 이야기 해 보겠다.

깨끗하게 씻어서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하면되는데 마라탕,떡볶이 등은 잘 안씻길 때가 있다. 나도 그게 고민이어서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하니 햇빛에 냅두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난 행군다음에 햇빛에 냅두었는데 완전히 깨끗해 진것은 아니지만 많이 깨끗해 졌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것같다.

다음은 페트병! 이 녀석도 얼마나 골치덩어리 인지 모르겠다.

일단 지역마다 다른 것같은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버리는 지역도 있는것같다. 원래는 플라스틱에 넣는데 기왕이면 투명 페트병에 넣어보자! 없다면 할수없지만 일단 내용물을 비우고 음료수일 경우 한번 씻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트려 버리면된다 라벨은 비닐로 버리면된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어렵다. 하지만 하나하나 지켜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환경이 괜찮아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다.

우리가 먼저 실천 한다면 작은 거라도 크게 변하여 많은 사람니 실천할수 있게 될 것이다!

일곱번째 홍보하기! 알리기! 관심가지기!

나는 환경일기를 쓰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팔로워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나로 통해 소소한 곳에서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고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나 그런 걸 올리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을 올린다. 이렇게 올리다 보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생기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포장할 때 반찬통 들고 가거나 카페엔 텀블러 들고 가기 등 많은데 사람들은 모른다. 용기를 가져가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천하고 있다. 다만 안보일 뿐이다. 하지만 알린다면 사람에겐 선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등의 관심을 가지다보면 나라에서도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주고 대안을 내세울 것이다. 난 곳곳 프로젝트라는 동아리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후원이나 개최하는 횟수 그 외에 비슷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다른 청소년들도 만나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환경을 더 잘 지키기로 했는데 이러한 활동이 잘 안 이루어 지는 것이 아쉬웠다. 관심만 가져준다면 지금의 청소년이, 미래의 아이들이 환경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더욱 나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나아질 것이고 유튜브에 나오는 환경광고는 건너뛰지 말고 다 보자 얼마나 좋은 정보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무분별하게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광고에 많이 나오니까 보면서 잘 새겨 봐야 할 것이다.

그 모습이 그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환경에 대하여 직접 검색도 해보고 후원이 되는 물건도 사보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알맞은 소비와 환경을 알리는 것도 해봐야 한다.

나 하나만 알면 아무리해도 안 바뀌는 것 같고 힘들다. 다수가 안다면 변화하는 것이 서서히 보일 것이며 더욱 힘을 내서 지구환경을 알리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나 알아둘 것은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보이는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하느니만 못하다. 잠깐 하느니 하지 말아라. 알아준다는 마음을 접고 지구와 동물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덟번째 나만의 무언가 만들기

나만의 규칙을 세우거나 나만의 텀블러 등을 만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

나만의 규칙이라 하면 2주에 한번 배달 음식 먹기 나 텀블러 잘 챙기고 다니기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 지킬 때마다 뿌듯하고 지구를 지켰다는 것이 느껴지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늘 들고 다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텀블러나 공병, 수저 등 챙기면서 이것은 내거고 음식점이나 그런곳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일회용품이 줄 것이고 또 한 번 뿌듯할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처음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습관을 들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하고 아 힘들어 안해야지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일회용품을 또 사용하게 된다. 이걸 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다. 작심삼일,,,진짜 3일하고 한번 깜박해서 텀블러를 챙기지 못했다 그 후로 1달 동안 안 챙기고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자괴감 오지게 들었다. 이래서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항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 두어 쓰게끔 해야 한다. 지금부터 이 글을 본 당신들! 주방에 안 예쁘다고 짱박아놓은 텀블러를 꺼내서 사용해보자 없다면 당장 사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사이클 제품을 사용하자 내가 산 여성 청결제는 병을 재활용한다고 한다. 포장도 종이상자였다. 물론 잘 맞는 걸 사용해야하지만 내가 구매한 것도 너무 잘 맞아서 2통 쟁여놓고 열심히 사용 중이다. 그리고 그런 병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따로 사용할수있음 씻어서 잘 보관해놓았다가 사용하면 정말 좋다! 쓰자마자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닌 재활용을 하거나 집에서 용기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변엔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다. 다 쓴 용기를 들고 가면 샴푸를 통에다 채워주고 그 양만큼 돈을 지불하면 된다. 또 소프넷 등의 친환경 적인 재료들을 구매할 수도 있다. 주변에 있다면 슬쩍 둘러보고 내겅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사보자!

아홉번째! 가끔은 비건도 좋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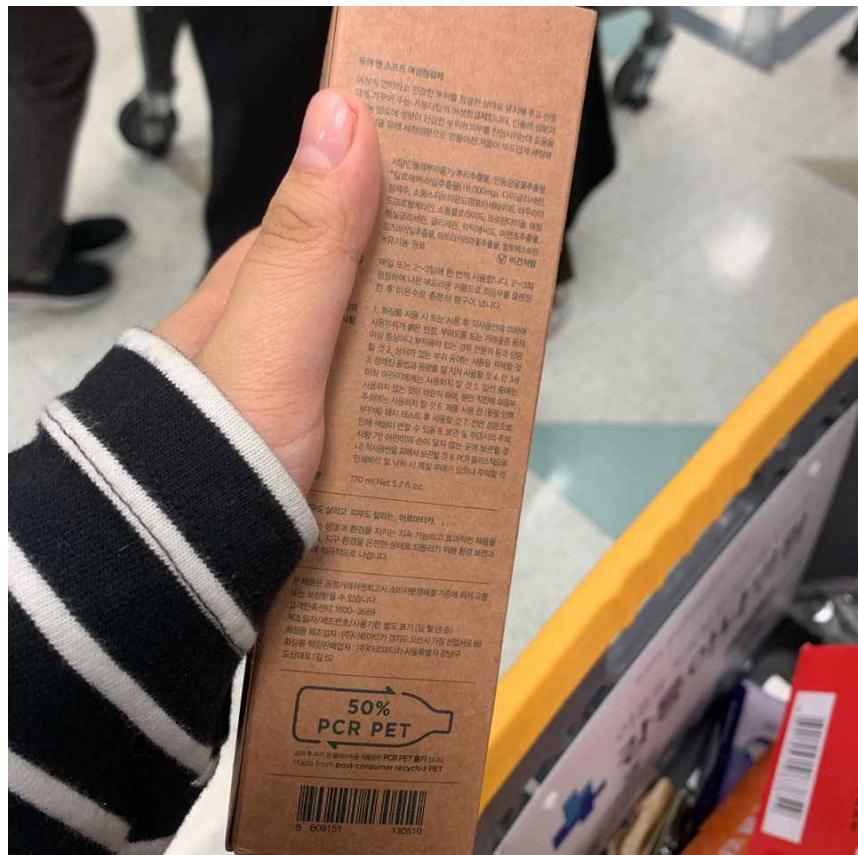
고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생산되는 과정은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요인이다. 심지어 소를 자유롭게 또는 닭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아닌 안에다 가두고 키우는 것이기에 동물의 권리도 침해당하는 거고, 목축을 하는 경우 땅을 일구기 위해 불로 태워서 나무 등 없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가끔은 비건도 괜찮은 것 같다. 햄버거 집에 가면 고기가 안 들어간 고기 맛나는 패티로 만든 햄버거도 있고 버섯으로 만든 패티 등이 있다. 아직 완전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이제부터라도 알면 된 거다 콩으로 만든 콩고기도 있고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마카롱 등 생각보다 먹을 것이 많다. 비건이 몸에 좋지만 적정량의 고기도 먹어야한다. 무조건 비건보다는 가끔씩 몸을 쉬게 해줄 겸 환경도 지킬 겸 비건을 해 보는 것 또한 새로운 도전이자 지구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비건이라하면 맛없다 라는 것이 있을텐데 나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 비건 빵을 배우는 사람도 많고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비건 요리 레시피들이 많다. 한번쯤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또는 내 자신을 위해 환경을 위해 가끔 비건을 실천해보자!

열번째 미루지 않기!

환경을 지키는 일을 미루지 말자. 미루고 미루다 보면 더 잡기 힘들어진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속해 나가야하지 미루면서 지속하면 더더욱 악화가 될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잘 챙겨야지, 내일부터 분리수거해야지 했다가는 언제까지 미루어져 실천을 안 할 수가 있다. 지구는 미루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변화를 하길 바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서 도움주기를 원한다.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다 무시할 것인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이기 전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미루면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다 포기하게 된다면 나중엔 이미 늦었다. 사실 지금도 늦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미루거나 포기하지는 말자. 끝까지 도와줘야하고 끝까지 해야만 한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다보면 미루지 않고 더욱더 신경 써서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모여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 귀찮다고 막 버리지 말고 귀찮다고 안 챙기지 말고 꼭 다 기억하고

있고 챙기도록 미루지 말아야한다.

숙제를 미루거나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지구 지키기를 미루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올 한해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을 못 누리고 지나왔다. 다른 전염병처럼 금방 종식 될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 이틀 버텨 냈지만 사그라질 때쯤 또 어디선가 확산되고 또 잠잠하다 확산되고를 반복한다.

불과 일 년전 일인데도 마스크 없이 찍힌 사진들이 낯설고, 이제는 티비 안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맨얼굴도 어색하기만 하다. 집순이 라이프를 즐기던 나 역시도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 하던 일상이 그리운데,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괜히 나는 어린 쌍둥이 동생과 그 친구들에게 미안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병이 확산되고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 말이다. 마음껏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흙을 만지고 땀 흘리며 놀 나이인데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배움의 권리도 침해당하며, 갑갑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어른인 내가 다 부끄럽고 미안했다.

우리는 늘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발견하고 발전하고 발명한다.

처음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다 점차 새로운 물질과 물체들을 만들고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럴수록 수백년 아니 어쩌면 수억 년 전부터 만들어진 숲과 바다와 거기에 사는 생명들을 헤치고 마치 인간이 지구를 창조 한 듯이 마구잡이로 어지럽히고 망가트리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동물들의 살 터전이 없어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다가 멸종이 되기도 하고, 실험실에 갇혀 잔인하게 죽어가거나,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좁은 게이트 안에서 갇혀 죽어간다. 코에 빨대가 꼽혀 아파하는 거북이, 다양한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먹고 죽은 바다 고래와 상어, 무분별한 벌목과 사회화로 사막화가 되어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들, 우리가 너무 훼손하고 무법자처럼 행동 했기에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지금처럼 계속 되는 환경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차 주기는 짧아지고 더 강력하고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깨어나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할 때인 것이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내어 줘야 하지 않을까?





사실 나는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지구를 지키는 영웅은 아니다. 종종 주변에서 “너
가 영웅도 아니면서 영웅처럼 굴려고 그래” 라던가 “야 어차피 노력해도 똑같아 그냥 포기하
면 편해” 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생각해보면 포기하는 게 편하고 난 영웅도 아니니까 이
일이 의무일리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구라는 곳에서 얹혀살고 있으면 깨끗하게 살아야 한
다고 생각한다. 지구는 우리가 태어나길 바랐을까? 그냥 어쩌다 보니 받아주고 있는 것일 텐
데 우리가 깨끗이 사용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난 환경에 관심은 있었지만 실천은 못했다. 이젠 선한 영향력을 위해 지구를 위해 나 하나의
행동이 다수에게도 실천이 되어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지구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지구는 그러지 못하고 표현만 한다. 어찌 보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지구다. 그 입장이라면 병은 악화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아무도 몰라주고
더 심해지면 정말 힘들 것이다. 지금 지구의 상황이다. 지구는 많은 방법으로 표현 해냈다.
비도 엄청 쏟아 내거나 갑자기 가뭄이 들거나 갑자기 불이 나고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등의
행동을 보여줬다. 인간은 관심이 없었다. 지구보다 더 뛰어난 기술로 다 억누르게 하였다.

지구가 주는 경고에 기술로 이겨버리는 치료는 해주지 않고 누르고 화만내고 왜 이러냐며 지
구 탓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지구는 인간이 하는 짓을 그대로 돌려줄
뿐이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나라도 지구 편을 들어줘야할 거 같았다. 나 말고도 지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
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기기는 힘들다. 지구편을 들러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눌러버린다. 지구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청하고 있다. 지구 편들어 나쁠 것도 없고 지구가
안 아파서 나쁠 건 없다. 어차피 사는 거 서로 좋게 살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돕
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것도 없다. 그 누가 지구에게 쫓겨나고 싶어 할까?

지구는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은 지구를 위해 무엇을 노력했을까?
깨끗한 하늘을 주고 좋은 공기를 주었는데 인간은 건물을 짓고 공장으로 화답하는 것인 셈이
다. 지구를 위해 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난 지구에 살고 싶고 지구를 지키고 싶다. 나는 지구가 주는 모든 것을 더 누리고 싶다.

깨끗한 바다와 선선한 산 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 많은 동물 친구들도 지키고 싶다. 귀
엽고 원래 살고 있던 동물 친구들도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 동물들이 삶의 터
전도 잃고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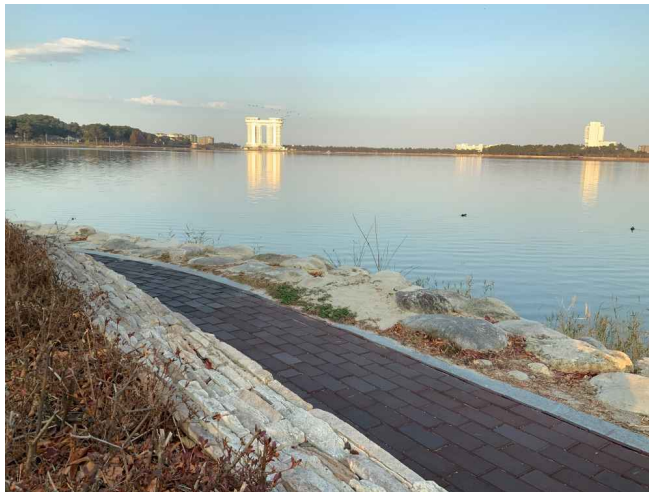
우리가 우리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듯이 우리도 지구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만 난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분명 다른이가 했다고는 하지만 난 내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발견한 문제점과 난 내 몸이 아프기에 더더욱 실천하려고 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지구를 지

키려고 했었는데 이젠 다수를 위해 지키기로 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변화하고 많은 숲이 지켜지고 많은 동물이 지켜지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하나의 TMI를 말하자면 난 지금도 전기장판 안 쓴다 (2020.11.16일 기준)
몸에 열이 많아서 일부러 안 쓴다고 했다!

내가 사는 주위 둘러보기

거울 같이 맑다 해서 불허진 경포 호수



우리학교 작은 숲





지난 주말 쌍둥이 동생과 엄마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 느지막한 시간에 경포 호수를 다녀왔다. 오랜만의 나들이라 기분이 좋았다.

정작 강릉에 살면서도 자주 가게 되지 않았는데 가을 끝자락인 경포호수는 어떨지 궁금했다.

날이 맑아서 그런지 경포호수의 이름답게 호수 안에 하늘이 담겨 있었다.

둘레길을 따라 걸으니 오리들이 둥둥 떠 있는 모습과 잔잔하게 물결치는 호수가 너무 아름다웠다. 갈대가 하늘거리고, 지금은 앙상한 벚나무가 늘어져 있어서 조금은 쓸쓸한 느낌이 들 수 있었지만 오래된 소나무와 조각상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가시연습지가 있었는데, 사실 가시연습지는 2008~2012년에 복원 공사를 했다고 한다. 복원 공사를 하기 전에는 경포호수가 흙탕물이었고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는데 다시 복원해서 조성을 해주니 자연은 또 몰라보게 원래 모습을 반세기만에 되찾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는 다양한 천연기념물인 철새들이 쉬어가고, 철마다 아름다운 꽃과 갈대숲으로 이루어져 가릉 주민들과 여행객들에게 휴식공간이 되어 준다.

산업화로 인해 무너져 가는 곳이 참 많은데 강릉 습지복원의 성공사례가 다른 곳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힘으로 경포호수의 복원을 이루어 냈으니 사막화가 되어가는 다른 곳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활속에서 노력 했으면 좋겠다.





우리학교(강일여자고등학교)는 학교 가운데에 큰 잔디밭이 있다 연못도 있고 학교 뒤편엔 숲과 같은 산책로가 있다.

나는 종종 그 산책로를 가는데 여러 가지 들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름엔 시원하고 선선해서 더 자주 이용했다. 하지만 이용하는 학생이 느는 만큼 쓰레기가 엄청 생기는 것도 보았고, 치워도 생기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들께 “그 길을 다니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질문했었다.

10분 중 6분은 “힐링된다, 상쾌해진다, 쌓인 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된다. 등의 말씀을 하셨지만 나머지 4분은 “관리가 잘 안 된다, 지저분하다”등 의 말씀도 하셨다.

사실 학교에 있는 시설은 따로 청소해주는 분이계시지만 다 하기엔 힘들다.

그 길 만큼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청소하고 꽃도 조금 심어놓는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학교는 하늘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온다(?)

학교 하교시간에 특히 해가 빠리지는 겨울에 찍으면 예쁜 사진이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잘 나오기도 하고 잘 찍힌다.

생각보다 자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 저번에는 방울토마토 꽃과 체육관 계단 사이에 핀 팽이밥도 사진 찍어 동아리 시간에 사진을 올린 적도 있다.

하지만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학교에 숲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선생님 분들과 학생들의 관심으로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길 바란다.

